

# 나주 혁신산단, 에너지밸리 틀 잡아간다

### 이달 11개 기업과 분양 계약...380억 투자·251명 고용 市, 전담반 가동 총 112개 기업 투자·분양률 67% 달해

나주 혁신산단이 꾸준한 분양으로 에너지밸리 틀을 잡아가고 있다. 나주시는 16일 5월에 11개 기업과 혁신산단 분양을 체결해 총 분양 112개 기업과 분양률 67%를 기록하게 됐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15일 시청 회의실에서 서울, 경기, 충남, 광주 등에 입지한 (주)에스엔에스 등 11개 기업 대표와 함께 6만4000㎡ 부지, 투자금액 380억원, 고용인원 251명에 달하는 합동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분양계약을 체결한 (주)에스엔에스(대표 정영욱)는 한국전력과 연간 수십억원 규모로 거래를 지속해온 트러스트파트너(trust partner) 선정 기업이다. 또 에스엔에스는 최근 베트남을 비롯해 이라크, 이란 등에 가스개폐기를 수출해

해외시장 진출에도 속도를 내며 매출 100억원의 중장기 전문기업으로 발돋움했다. 앞서 시는 지난 4월 한전에서 에너지밸리 투자협약식을 한 총 30개 협약기업 중 16개 기업과 혁신산단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혁신산단은 투자 협약한 144개 기업 중 112개가 실질적인 분양을 해 투자 실현율 78%를 달성했으며 43개 기업이 공장 준공을 마치고 제품생산에 들어가 에너지밸리 전용산단의 면모를 갖춰가고 있다. 시는 혁신산단에 투자유치를 높이기 위해 전라남도 및 한전과 합동으로 투자유치 전담 2개 반을 가동해 집중적으로 투자협약 기업을 방문하고 있다. 전담반은 기업의 애로 및 건의사항, 각



조재운 나주시장 권한대행과 장주일 혁신산단 대표이사, 정영욱 (주)에스엔에스 대표 등 11개 기업 대표들이 지난 5일 나주시청 회의실에서 합동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나주시 제공>

종 지원제도, 한국전력의 제한경쟁 입찰 등을 설명하고 에너지밸리가 조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주력하고 있다. 조재운 나주시장 권한대행은 “분양 계약을 실현해주신 기업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입주기업들이 조기에 안착될 수 있

도록 행·재정적 지원 및 제도개선을 통해 경영하기 좋은 산단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갈 것”이라며 “인력채용과 근로자의 주거, 교통문제 등 정주여건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나주=손영철기자 ycsn@



## ‘천년의 향만’ 영산포 도시재생 닷 올려

### 주민과 함께 원탁회의 열어

‘천년의 향만’ 나주 영산포의 도시재생사업이 닷을 올렸다. 16일 나주시에 따르면 시는 영산포 권 도시재생 뉴딜사업 재도전을 위해 지난 10일 주민과 함께 하는 원탁회의를 개최했다. <사진> 시는 주민협의체 회원과 청년, 상인 등 60여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가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 선정을 위한 다양하고 참신한 의견을 교환하고 사업 추진에 대한 상호 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원탁회의에서는 2017년 개발한 도시재생 사업 및 새롭게 제시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재생구역 재 확정 문제 ▲청년 창업 공간 해소 ▲도심 내 주차장 공간 조성 ▲근대 청년몰 ▲죽전거리 활성화 등 젊은 계층을 유입할 수 있

는 방안이 제안됐다. 나주 영산포는 고려시대 이전부터 영산강을 통한 해운의 요충지로 중국, 일본 등 국제적 해운의 거점지역으로 꼽힌다. 나라의 조창으로 1000년 이상의 영화가 깃든 유서 깊은 해양 향만 도시로 번성기를 누렸던 곳이나, 해운의 길이 막혀버린 근현대에 급격하게 쇠락해 도시재생사업이 절실한 실정이다. 시는 이번 회의를 통해 제안된 주민 의견을 영산포권 도시재생 계획에 적극 반영해 시민이 주체가 되는 도시재생을 도모할 계획이다. 시는 또 주민 제안사항을 바탕으로 영산포 도시재생뉴딜 공모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사업 확정 후 지난해에 이어 국토교통부 공모에 제도전환 방침이다. /나주=김민수기자 kms@

## 시민이 직접 여는 ‘나만의 전시회’

### 시, 연말까지 릴레이 개최

나주시가 시민작품 전시회 공모를 거쳐 혁신도시 빛가람스마트미디어스테이션에서 연말까지 릴레이 전시회를 연다. 나주시는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문화 육구 촉진을 위해 지난해 시민이 직접 전시회를 열 수 있는 ‘나만의 전시회’ 공모사업을 시행했다. 공모에는 한국화·회화·캘리그래피·생활 공예품 등 개인 6팀과 다시초·반남초 학생들로 구성된 단체 2팀 등 총 8팀이 참여했다. 나주시는 선정된 개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한 달간 단독 전시회를 개최할 수 있는 장소로 빛가람스마트미디어스테이션 2층을 무상 대여한다. 또 전시회에 필요한 현수막과 팸플릿 제작, 홍보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달에는 ‘생각을 품다, 생각을 그리다’를 주제로 이행업 작가의 유화와 아크릴 작품 전시회를 연다. 이어 한국화(6·8월), 공예(7월), 학생미술·공예(9·11월), 캘리그래피(10월), 서예(12월) 등 연말까지 다양한 분야의 예술 작품들을 선보인다. 나주시 관계자는 “문화 생산의 주체인 시민의 문화·예술적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주민의 문화적 욕구 해소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기자 kms@

## 나주읍성 4대문 복원 초읽기...북망문 복원 상량식



나주시는 16일 나주읍성 4대문 복원사업의 마지막 관문인 북망문 복원 상량식을 개최하고 무탈한 공사를 기원했다. <나주시 제공>

나주시가 추진하는 나주읍성 4대문 복원사업 완공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나주시는 16일 나주읍성 4대문 복원사업 마지막 관문인 북망문 복원 상량식을 개최하고 무탈한 공사를 기원했다. 상량식(上樑式)은 집을 지을 때 기둥을 세우고 보를 얹은 다음 마룻대를 올리는 의식으로, 공사 기간 무사고를 기원하고 거주자 바람과 희망을 적어 고사를 지내는 전통 풍습이다. 나주시는 전라도 중심이자 과거 호남 응도로서 2천 년 역사문화도시 위상을 되찾고자 1993년 남교문을 시작으로 국가지정 문화재 사적 제337호인 나주읍성 4대문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남교문에 이어 2005년 10월 동점문, 2011년 10월 서성문 복원을 완료했다. 나주시는 복원사업 25년째이자 전라도 정명 전 년인 올해 10월 준공을 목표로 북망문 복원 공사를 진행 중이다. 북망문 복원사업에는 84억원이 투입됐다. 2012년 토지매입을 시작으로 2014년 1차 발굴조사 후 2015년 1월 착공했다. 북망문은 성벽 길이 107m, 웅성 42m, 문루 45m로 복원된다. 대문 일원에 잔디광장과 주차장을 조성해 관광객과 주민에 편의를 제공한다. 현재 읍성은 조선시대 나주부 부임한 김

계희 목사(1457년 8월~1459년 11월)에 의해 최종적으로 완성됐으나 일제 강점기 때 원형을 상실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주시는 이날 북망문 문루공사 최상부에 마룻대를 올리고 관련된 기록과 축원문을 봉안하는 의식을 진행했다. 조재운 나주시장 권한대행은 “북망문 복원으로 역사문화 중심도시로서 나주시가 전라도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4대문을 도심 속 유휴 공간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해 관광객 유치와 일도심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기자 kms@kwangju.co.kr

## ‘주몽콜택시’ 임직원, 독거노인 35명과 봄나들이 혼 혼



지난 14일 주몽콜택시 임·직원들이 지역 독거노인 35명과 함께 새만금간척지와 채석장 등을 돌아보는 봄나들이 행사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나주시 지역 택회사인 ‘주몽콜택시’ (회장 김충만)의 임·직원들은 지난 14일 고구려대학교 노인복지센터의 노인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는 독거노인 35명과 함께 봄나들이 행사를 가졌다. 주몽콜택시는 장거리 여행 기회가 적은 독거노인들의 정서적 안정과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10년째 나들이 행사를 추진해오고 있다. 이날 부안군으로 나들이를 나선 어르신 일행은 새만금간척지와 채석장

등을 돌아보며 즐거운 추억을 쌓았다. 택시 종사자들의 가족으로 구성된 9명이 자원봉사자가 돼 어르신들과 동행하며 나들이 편의를 도왔다. 김관영 나주시 사회복지과장은 “매년 지역 독거 어르신들에게 색다른 추억을 선물해주고 있는 주몽콜택시 직원들에게 감사하다”며 “지역 소외된 독거어르신들을 위한 여가복지와 문화 활동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손영철기자 ycsn@

**광주 송정역·광주역·목포역**

**역사내 광고주모집**

**광고 PREMIUM**

- 수서발 고속열차 SRT 개통 후 이용객 급증
- 송정시장
- 광주역 ⇄ 송정역 셔틀열차

**이용객 증가추이** (단위: 명)

역명	2015년	2017년
광주송정역	3,998,000	6,908,000
목포역	1,773,000	2,271,000

**공식대행사 나코스(유)** 010-8822-5425 062-376-5420

**방수**

**부위별 방수시스템!!**

**분야별 방수 시스템!!**

**최적의 방수 시스템!!**

**“최선을 다하여 성실 시공합니다”**

광주 062)676-7719  
전남 061)375-7719

**무료견적 시공상담**

방수전문그룹 **CHILMAN** **CMTECH**  
광주, 전남 시공회사 (주)씨엠테크복합방수

**걱정하지 마세요!!**

“철만표방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유사품, 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시공 및 제품 판매 / 셀프시공가능

(주)씨엠테크복합방수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